

# 작년보다 일찍 유입 비래해충 ‘주의보’

### 부안서 멸강나방 성충 발견... 중국 남부 기온 높아 해충 번식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배경 농진청, 페로몬 트랩 활용 조사 강화 · 대규모 발생 시 빠른 방제 등으로 피해 최소화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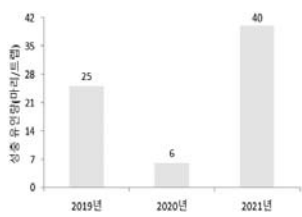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 등 비래해충(飛來害蟲)의 유입 시기가 지난해보다 빠르고 그 수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비슷한 생태적 습성을 가진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은 봄철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날아와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유충(애벌레)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벼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마구 갉아먹어 피해를 입힌다.

2019년 국내 처음 유입된 검역병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은 현재(4.20 기준) 우리나라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멸강나방의 경우 지난달 27일 충남 서천과 전북 부안에서 성충(어른벌레) 유입이 확인됐다.

지난달 초 멸강나방 예찰을 위해 설치한 포획장치(페로몬 트랩)에 서천과 부안에서 각각 10마리, 40마리의

〈부안지역 멸강나방 성충 유입수〉



멸강나방 성충이 잡혔다. 특히 2019년 같은 시기에 2마리, 2020년 6마리가 포획된 적 있는 부안의 경우 올해 발생량이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한 열대거세미나방의 중국 발생 동향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절강성, 강소성, 복건성의 해충발생은 많지 않으나 중국 남부지역 운남성, 광둥성, 광서성의 옥수수 재배지에서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전년 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초순부터 벼과 작물에 비래해충 유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은 80여 종의 작물을 가리지 않고 갉아먹는 광식성 해충으로 벼과 작물은 물론 배추, 마늘, 가지와 작물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

올해 비래해충의 유입 시기가 빠르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배경에는 중국 남부지역의 평균 기온이 높아 해충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전국 140개 지역에 설치한 비래해충 성충 포획장치(페로몬 트랩)를 활용한 조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발생 시 빠른 방제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비래해충 피해 최소화해 나설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특히 검역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예찰·방제를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이달 19일부터 옥수수 정식(아주심기)이 가장 빠른 제주와 남해안의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중국 측 상황과 국내 봄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강우량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나방류 해충의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농현현장에서는 수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한 약제 준비 등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에서 귀리와 밀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손춘석 씨는 “비래해충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봄철에는 수시로 재배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귀리·밀에 주는 멸강나방 약제의 빠른 등록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귀리·밀에 사용할 수 있는 멸강나방 방제약제 등록시험을 추진 중이며, 2022년에 약제 등록이 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부안군지부, 변산농협은 27일 변산농협 1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곁안·돌보기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를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실시했다.

## 변산서 올 첫 ‘농업인행복버스’ 출발

### 전북농협,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 돌보기 지원 서비스 제공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인갑), 변산농협(조합장 신왕철)은 27일 변산농협 1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곁안·돌보기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를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상용을 감안해 마을단위 20~30명씩 나눠서 입장하고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기를 잃은 농촌지역에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린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행복버스는 소외된 농촌지역에 의료와 문화, 법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4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실익증진 사업이다. /김윤상 기자

## 백형희 신임 식품연구원장 취임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이 26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13대 박용근 전 원장, 14대 박동준 전 원장, 최하중 식품(연) 부설 세계감치연구소장 대행 등 내빈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했다.

지난 2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신임 백형희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시작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식품(연) 또한 변화와 도약을 위한 시기를, 새로운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연)은 임직원의 연구원이 아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백세 장수시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의 연구원임을 주지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 친환경 금융 서비스로 ESG경영 실천 앞장

### 전북은행, 전북도와 ‘탈석탄 금융’ 협약 체결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8일 전라북도와 ‘탈석탄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탈석탄 금융 협약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전라북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후변화 위기 요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소는 석탄 특유의 높은 탄소 집약도로 인해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초기세 먼지 배출량 증가의 가장 큰 대기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전북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석탄금융 축소와 기후금융 확산 환경조성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미참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채권 미인수



▲탈석탄 확산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적극 협력 등을 실천한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은 이미 올해 초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금융 선언식을 갖고 친환경 금융 서비스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한국 은행장 취임 이후 전북은행은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친환경 금융 추진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관련 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신규대출 중단, 관련사업의 채권 인수 중단을 시작으로 환경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책임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주도 및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금융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는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은 필수 조건이 되었다”며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기후변화 대응 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기대하며, 전북은행 또한 ESG 경영을 기반으로 은행의 체질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농협 남원지부, 청년조합원 확대 회의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27일, 남원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 관련 사업 기반 약화 초래 ▲지속가능한 미래 남원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 발굴 및 조합원 가입을 통한 정예농업인 육성 등의 배경으로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남원관내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청년농업인 육성 의지를 다졌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 및 지표 설정하고 추후 세부일정 등을 심



도 있게 논의했다.

권오정 지부장은 “지속가능한 남원시의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필수”라며 “농협은 청년조합원 확대 추진을 통해 청년조합원을 남원시 농산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K푸드 온라인 코디네이터

### 내달 4일까지 모집... 청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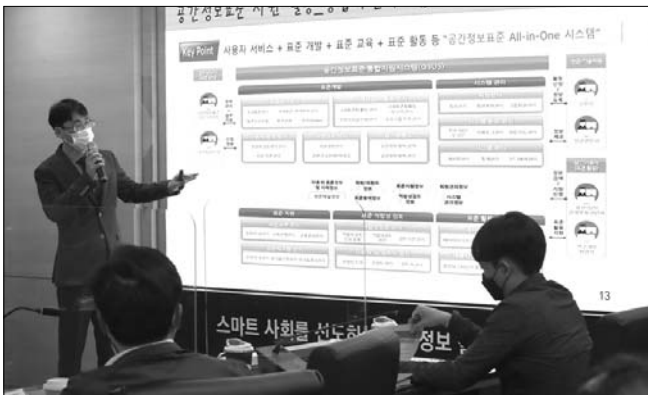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농식품 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입점·판매 지원을 위한 밀착 지원 인력인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를 오는 5월 4일까지 모집한다.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는 한국 농식품 해외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 농식품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 시장조사, ‘온라인몰 입점 및 운영지원’, ‘온라인 네트워크 업무지원’ 등 중소 농식품기업에 1:1로 맞춤형 온라인분야 밀착 관리·지원하는 농식품분야 디지털 인력지원 프로그램이다.

aT는 30세 이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최종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aT 오프라인 수출이사는 “CV19로 인해 온라인 마케팅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 온라인 시장개척 역량 강화와 함께 디지털 전문인력 배양 및 고용창출에도 앞장서겠다”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30세 이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워크넷(채용정보-정부지원일자리)에서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27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 시연회에서 LX 관계자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 공간정보표준 활성화 ‘시동’

### LX, 통합지원시스템 시연회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공간정보표준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LX는 이를 위해 27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은 국내 최초 공간정보표준 올인원(All In One) 시스템으로 여러 포털에 산재되어 있던 표준관련 정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표준검색 및 열람, 표준

교육, 표준활용솔루션 등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효율적인 업무와 기관 간 협업·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LX는 이번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의 신속하고 다양한 표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가는 데이터 구축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욱 공간정보부장은 “이번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은 공간정보표준 준수 및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표준기반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로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

###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민의 힘 입자 의의실과 탄소중립과 한반도 자연생태계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회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며,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제1회 국립공원의 날’ 지정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기후 위기시대 국립공원과 공단의 탄소중립 실현방안과 역할 등 각종 현안을 토론했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정읍 농어촌공, 경영희생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는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 상환을 도와주고,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후 판매하는 ‘경영희생지원사업’을 위해 2021년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 4천만원 이상이고,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도 매입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3월 전북수출 7억1998만 달러

### 전년동월비 34.2% ↑ ... 지역경제 활력 기대

3월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2% 증가한 7억1,998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7억 2880만 달러) 이후 최고 수출액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발표한 ‘2021년 3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2% 증가한 7억 1,998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9,011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전라북도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인 16.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56.3% 증가한 합성수지(\$6,241만, 56.3%)였으며, 정밀화학

원료(\$5,534만, 29.5%), 동계제품(\$5,286만, 49.6%), 농약 및 의약품(\$4,760만, 51.9%), 자물쇠(\$4,461만, 5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 6,990만, 53.3%), 미국(\$1억 2,397만, 56.1%), 베트남(\$4,088만, 39.1%), 일본(\$3,883만, 7.8%), 폴란드(\$2,855만, 75.8%) 등 5대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중국 수출의 경우 합성수지(74.4%), 정밀화학원료(49.1%) 등의 화학공업 제품이, 미국 수출의 경우 농기계(29.9%), 건설광산기계(66.0%) 등의 기계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본부장은 “이번 3월실적 뿐만 아니라 1분기 수출실적을 봐도 전년 동기 대비 18%가 성장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이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노력과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개발청,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8일 새만금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새만금개발청 내부공모 및 국민 추천을 통해 4월 14일까지 접수된 17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심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5개가 선정됐다.

이 중 ‘새만금 기본계획 재 정비’,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2건)로 선정됐으며, 그 외 ‘의료기기 선도기업 공장 등록 지원’, ‘불필요 지투리 토지 발생 해소’, ‘공직복무관리 강화’가 우수사례(3건)로 뽑혔다. /유호상 기자